

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일시	2020. 11. 9.(월)
발신	artplantasia@gmail.com	문의	PR 매니저 권순우 (010-2794-7326)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ID : apasia2020 , PW : apasia2021) Guest 그룹/ 보도자료		

코로나 시대 돌파하는 한국미술(K-ART)의 현재와 미래

야외 전시, 화상학술회, 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 모아

덕수궁에서 11월 22일(일)까지 펼쳐지는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 ‘언컨택트’(Uncontact) 콘셉트로 기획된 현대미술축제

- 덕수궁 야외 활용해 열리는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의 주제전 “토끼 방향 오브젝트”
- 이우환, 윤형근, 이불, 양혜규, 강서경 등 한국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 한 자리에
- 유망 아시아 작가 포함해 10월 23일(금)부터 11월 22일(일)까지 개최

● 작가, 갤러리, 연구자 등 모여 한국미술(K-ART)의 대안적 착상 쏟아내

- 국내외 석학들이 화상학술회 열고, 유튜브 라이브와 줌 이용해 청중과 소통
- 3D 스캔 데이터에 기반한 웹 게임 통해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하고 학습
- ‘갤러리 데이’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해 K-ART의 가능성 선봬

사단법인 아트플랜트아시아(이사장 윤훈열)가 중구청(청장 서양호)과 개최한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Art Plant Asia 2020, 이하 AP아시아 2020)이 11월 2일 현재 덕수궁에서 펼쳐지고 있다. AP아시아 2020의 주제전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 11인(박수근과 주호회, 김홍주, 윤형근, 이우환 등)과 19인의 동시대 작가(강서경, 김희천, 안정주+전소정, 양혜규, 이불 등)가 작품을 출품해 관객을 맞는다. 이밖에 옴/신페스티벌(예술감독 김성희)과의 공동기획으로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아시아 작가 3인(로이스응, 호루이안, 호추니엔)을 초대했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언컨택트’(Uncontact)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토끼 방향 오브젝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한 야외 공간의 이점을 살려 덕수궁을 전시 장소로 선택, 한국 문화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동시대 미술을 조화롭게 포용했다. 가을철 덕수궁이 야간개장(9시~21시)하는 시기에 맞추어 궁내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이 야외 환경과 호응하며 각각의 스케줄대로 열고 닫힌다. 대부분의 작품을 시간에 관계 없이 감상할 수 있지만, 전시 리플렛이 제안하는 ‘최

적의 관람시간'에 따라 여러 번 색다른 감상이 가능하다. 미술관 안에서와 달리 변화무쌍한 환경과 어우러지는 야외 전시의 장점이다.

AP아시아 2020은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연구팀이 설립한 테크캡슐과 제휴해 3D 스캔 데이터에 기반한 전시 소개 게임을 제작한다. 게이머는 정교하게 3D 스캔된 덕수궁 건축물과 작품들을 웹에서 감상하고, 게임 속 안내에 따라 전시를 탐사 및 학습할 수 있다. 신기술에 의존해 주로 사실적인 재현과 정보 전달에 치중했던 기존 비대면 콘텐츠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약간의 아이디어,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조합한 결과다. 게임은 전시 기간 중 AP아시아 2020 웹사이트(<http://artplantasia.org>)에서 공개되며 전시 종료 이후에도 플레이가 가능하다.

11월 7일(국제갤러리), 14일(정동1928 아트센터), 17일(PKM갤러리) 각각 개최되는 '갤러리 데이' 행사에서는 김홍주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 오종 작가와 사브리나 암라니 갤러리(Sabrina Amrani, 스페인)의 화상 아티스트 토크, 국내외 주요 갤러리 10여곳(현대갤러리(한국), ROH(인도네시아), Fulfill(대만), FOST(싱가폴), Jhaveri(인도), BANK(중국)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질의응답 영상 상영, 안소연 아틀리에 에르메스 디렉터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해외 교류가 쉽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 맞춰 세계적인 갤러리들과의 대안적 협력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미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10월 8일과 29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화상학술회에선 김남시(이화여대 교수), 박성광(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이승현(AP아시아 2020 총감독), 이정우(경희사이버대 교수)를 비롯, 육후이(Yuk Hui, 중국, 바우하우스 교수), 고쿠분 고이치로(Koichiro Kokubun, 일본, 도쿄대학교 철학과 교수), 모르텐 스폰베리(Mårten Spångberg, 스웨덴, 안무가)의 발제와 김성희(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옴/신페스티벌 예술감독의 문답이 이어졌다. 학술회는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현장 질의와 온라인 대담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 백여 명의 청중과 함께 진행됐다. 특히 “사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이 되는 것”(고쿠분), “예술의 임무는 새롭거나 다른 경험의 가능성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스폰베리)이라는 언급이 이번 주제전 출품작, 나아가 팬데믹이라는 오늘의 현실과 공명하며 호응을 얻었다.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속에서 'K-방역' 모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승현 AP아시아 2020 총감독은 이번 행사가 'K-방역'의 합리적 성공을 딛고 새로운 예술 감상과 경험의 방식을 세계에 제안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가, 갤러리, 연구자 등 여러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한국미술(K-ART)의 대안적 착상과 가능성을 실험한다. 행사는 아시아 예술가와 시민들이 미술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매개장을 목표로 11월 22일(일)까지 개최된다. <끝>

- 붙임: 1. 주제전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개요
2. 주제전 주요 참여작가 소개
3. 부대프로그램 개요

○ 주제전 <토끼 방향 오브젝트(Hare Way Object)> 개요

- 행사명: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 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 기간: 2020년 10월 23일(금)~2020년 11월 22일(일)
-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무
(매주 1회 소그룹 야간 전시 투어 프로그램 진행, 추후 일정 공지)
- 입장료: 1,000원(덕수궁 입장료)
- 참여작가

① 한국 동시대 작가(19명/팀)

강서경, 구동희, 김희천, 박광수, 박경률, 박정혜, 슬기와민, 안정주+전소정, 양혜규, 오종, 우한나, 이불, 이우성, 임영주, 정은영, 정지현, 정희승, 차재민, 최고은

② 한국 근현대 작가(11명/팀)

김혜련, 김흥수, 김환기, 김홍주, 남관, 박서보, 박수근과 주호회(최영림, 황유엽, 홍종명, 박창돈), 김창열, 윤형근, 이우환

③ 해외 작가(3명)

로이스응(Royce Ng), 호루이안(Ho Rui An), 호추니엔(Ho Tzu Nyen)

— 총감독: 이승현

— 큐레이터: 윤율리, 장혜정

— 해외 작가 커미셔너: 김성희

— 주최: 아트 플랜트 아시아, 중구청

— 주관: 아트 플랜트 아시아, 중구청, 정동1928아트센터

— 협력 기관: 옴/신 페스티벌

— 후원: BC카드, 서울특별시

— 협찬: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Vitabrid C¹², 동국제약, 딜라이브

— 기자간담회: 2020년 09월 28일(월) 오전 11시, '정동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

○ 이불



이불, <키아즈마(Chiasma)>, 2005, 알루미늄에 폴리우레탄 패널, 아크릴 코팅 외, 195x383x395cm /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설치 전경

이불은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역사의식, 유토피아에 관한 인본주의적 탐구 속에 개인적 내러티브를 투영시킨 작업들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대미술계를 선도하는 한국 대표작가로 자리매김 해왔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그의 작업은 퍼포먼스, 조각, 설치, 회화, 드로잉, 그리고 영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로 시각화 된다. 작가는 뉴욕현대미술관, 뉴뮤지엄, 구겐하임미술관, 무담 룩셈부르크,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등 세계 최정상급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아시아 여성작가 최초로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 한국작가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초청되어 (1999, 2019) 동시대 최고 작가로서의 명성을 증명하였다. 이불은 1998년 휴고보스상 최종후보,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2014년 광주비엔날레 눈예술상, 2019년 호암상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삼성 리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LA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pkm)

○ 안정주+전소정



안정주+전소정, <누드 모델>, 2015, 싱글채널비디오, 37분 40초 / “장미로 엮은 이 왕관”(아틀리에 에르메스)
설치 전경

대중 매체나 일상에서 채집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변형과 변주, 반복과 분절을 통해 독자적인 서사 구조를 지닌 무빙이미지를 실험하는 ‘안정주’와 영상, 설치, 출판 등의 다양한 매체적 시도를 감각적으로 번역해 현재에 질문을 던지는 ‘전소정’이 결성한 프로젝트 팀. 영상과 음악 등 형식과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미로 엮은 이 왕관》(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 《검은 밤, 비디오 나이트》(d/p, 서울, 2018) 등의 단독 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HIAP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김희천, <바벨>, 2015, 단채널비디오, HD(16:9), 흑백, 스테레오 21분

김희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개인전 《탱크》(아트선재센터, 서울, 2019), 《흙》(두산갤러리, 서울, 2019)을 개최했다. 부산비엔날레(부산, 2020), 광주비엔날레(광주, 2018), 이스탄불비엔날레(이스탄불, 2017), 미디어시티서울(서울, 2016)같은 비엔날레를 비롯,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9), ZKM(칼스루에, 2019), MCAD(마닐라, 2019)등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홍주, <무제>, 1979, 나무 위 실크에 유채, 80x55cm / 출처: K-Auction

김홍주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모임 ST에서 개념 미술 등을 접하며 1970년대부터 거울, 유리창 등의 오브제에 세밀한 수공의 작업으로 유리나 거울에 투영된 인물을 그렸다. 이미지와 사물 사이를 왕래하는 그의 작업은 이후 서구와 전통, 고급과 대중, 담론과 실천을 과감하게 넘나드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세밀한 선묘로 화면을 채워나가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더 그레이트 콜렉션’에서 개인전《형태가 될 수 없는 형태》(서울, 2020)를 비롯, 국제갤러리(서울, 2015), 아르코 미술관(서울,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4 ID》(갤러리 내일, 서울, 2020), 《Korea Tomorrow 2015》(성곡미술관, 서울, 2015),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2006년 ‘파라다이스 어워드’ (Art in Culture, 2006)를, 2005년 ‘제6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호추니엔



호추니엔, <노 맨II>, 2017, 영상 설치, 360분 연속상영

호추니엔은 싱가포르의 미디어 및 공연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영상과 그림이 혼합된 작품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바로 나》(2003)는 상파울로비엔날레, 후쿠오카 아시아트리엔날레에 전시되었으며, 장편 데뷔작 《여기 어딘가에》(2009)가 칸 영화제에, 《미지의 구름》(2011)이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의 공연 작품 《만 마리의 호랑이》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축제에서 공연되었다.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동남아시아 비평사전 제2권: G-Ghost(유령작가)》가 소개되었다. 2018년 다원예술 프로젝트 《아시아포커스》를 통해 《의문의 라이텍》을 발표했다.

○ 갤러리 데이

작품과 담론의 생산 못지 않게, 활발한 유통은 미술계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갤러리 데이’는 이에 관한 AP아시아 2020의 비전을 담은 갤러리 프레젠테이션 행사로, 국내외 주요 갤러리와 아시아 유망 갤러리 10여곳을 초대하여 갤러리와 작가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11월 7일

장소: 국제갤러리 서울 K3

시간: 13:00-14:30

내용: 김홍주 작가 아티스트 토크, 모더레이터: 권태현(미술비평), 유진영(미술비평)

• 11월 14일

장소: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홀

시간: 13:00-18:00

내용:

— 근대미술 시장 활성화에 관한 대화, 참여: 김윤섭(미술비평), 최웅철(한국화랑협회장), 황규성(전 리움미술관 수집보존부 실장) 등

— 오종 작가 아티스트 토크, 참여: 사브리나 암라니(Sabrina Amrani, 마드리드) 갤러리

— 아시아 동시대미술에 관한 문답, 참여: 현대갤러리(서울), ROH(자카르타), 풀필(Fulfill, 타이베이), 포스트(FOST, 싱가포르), 자하베리(Jhaveri, 뭄바이), 실버렌즈(Silverlens, 마닐라), 뱅크(BANK, 상해) 등

— 한국 동시대미술의 국제 프로모션에 관한 대화, 참여: 패트릭 리(현대갤러리 디렉터), 리안 갤러리 등, 모더레이터: 앤디 루이스

• 11월 17일

장소: PKM 갤러리

시간: 11:00-12:00

내용: 특강, 강사: 안소연(아뜰리에 에르메스 디렉터)

※ 사전 예약 필수. 예약은 AP아시아 웹사이트 또는 SNS를 통해 가능합니다.

※ 모든 부대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예약제로 초청 또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과 스트리밍을 병행해 진행 예정.